

# 황덕길의 독서론 고찰

A Study on Hwang, Duckgil's reading theory

김 순 희 (Kim, Soon-Hee)\*

## ◁ 목 차 ▷

- |                 |                 |
|-----------------|-----------------|
| 1. 導 言          | 3.1 讀書次第圖       |
| 2. 저술의 배경       | 3.2 并說          |
| 2.1 황덕길의 편저     | 3.3 「擊蒙要訣」과의 비교 |
| 2.2 18세기의 독서 양상 | 4. 結 言          |
| 3. 讀書次第圖의 분석    | <참고문헌>          |

## < 초 목 >

이 연구는 18세기 지식인의 독서론을 고찰하고자 下廬 黃德吉(1750~1827)의 문집인 『下廬集』 속에 수록된 <讀書次第圖>를 통하여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의 전형적인 유학자이자 성리학자인 황덕길의 독서방법과 독서론을 연구한 것이다. 황덕길은 南人 실학파의 학자로서 전형적인 유학자이며 성리학자로 그의 학문적 자세와 입장이 讀書次第圖에 잘 나타나 있다. 황덕길은 독서의 순서를 先讀, 次讀, 兼看 등의 3단계로 분류하였다. 讀書次第圖의 특징은 성리서를 사서오경의 수준으로까지 격상한 것과 조선 서적의 필독을 강조하였다. 황덕길의 독서론은 傳道·溫習·實踐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는 독서가 道를 전해 받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하였다. 독서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溫習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오늘 하나를 배우면 그것을 예전에 배운 것과 연결하여 익히고,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익히는 과정을 생을 마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독서의 목적이 배운 것을 실천함에 있다고 했다.

이이의 『擊蒙要訣』과 비교해 보면 제시한 독서 목록이 대부분 유사하나. 이이는 유학의 경전을 먼저 읽고 난 뒤에 성리서를 읽고, 다음으로 역사서를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 황덕길은 성리서 중에서도 사서와 함께 먼저 읽어야 할 것과 오경과 함께 뒤에 읽어야 할 것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독서에 있어서 대상 서책을 읽을 때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을 제시했는데 이이는 전체 성리서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읽을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 말했으나, 황덕길은 각 성리서별로 관점을 제시한 차이가 있다. 황덕길의 독서론은 이이의 영향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서 이이의 독서론보다 한층 성숙한 측면이 있다.

要語: 황덕길, 하려집, 독서차제도, 독서방법, 독서론

\*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iva@cnu.ac.kr)

접수일: 2012년 12월 4일 최초심사일: 2012년 12월 12일 심사완료일: 2012년 12월 17일

<ABSTRACT>

To survey how the intelligent in the 18C read a book, the writer studies Hwang Duckgil's reading method and theory by doing research *Duksuochajedo*(讀書次第圖) which is Hwang, Duckgil's collection showing the reading order and also published in *Hareojip*(下廬集)written by Hwang, Duckgil, who was the Confucian scholar and New Confucian scholar from the late 18c to the early 19c.

Hwang classified the reading order into three steps: "to read in advance, to read intensively, and to skim." Hwang emphasized the rising importance of Korean New Confucian Books up to the Nine Chinese Classics(四書五經), and placed importance on Korean New Confucian Books as reading materials.

Hwang's reading theory can be summed up in propagandism(傳道), review(溫習), and practice(實踐). Hwang considered reading as the only way to pass on Tao(道). He focussed on review which connects what we learn today with what we learned yesterday. He focussed to repeat the sustainable learning process continually as long as we live. In terms of him, the purpose of learning is to practise what we learned to every day's life.

When we compare *Kyukmongyokyul*(擊蒙要訣) with *Duksuochajedo*(讀書次第圖), Yiyi(李珥) argues that people should read Confucianism book at first, and then New Confucian book, next history book. On the other hand, Hwang divided New Confucian books into two classes: New Confucian Books with the Four Classics of Confucianism, the other New Confucian book with the Five Books of Confucianism.

Yiyi focussed on the reader's general attitude toward the New Confucian Book, on the other hand, Hwang provided all types of information, with an emphasis on each New Confucian Book. Hwang's reading theory accommodates a part of Yiyi's theory. However we can look for more progressed aspect in Hwang's theory than Yiyi's.

Key words: Hwang, Duckgil, *Duksuochajedo*, *Hareojip*, reading theory

## 1. 導 言

이 연구는 18세기 조선 지식인들의 독서론을 고찰하고자 하는 일련의 작업 중에 하나이다. 연구 대상은 下廬 黃德吉(1750~1827)의 <讀書次第圖>인데 이것은 조선 후기의 지식인이었던 선비들의 일상적인 독서의 순서를 간명하게 도표로 작성한 것이어서 나름대로의 가치와 의의를 갖고 있다.

황덕길은 退溪 李滉을 연원으로 하여 寒岡 鄭述, 眉叟 許穆, 星湖 李瀼, 順菴 安鼎福으로 이어지는 南人 실학파의 적통을 잇는 학자로서 그의 제자에는 조선 후기 유학자의 상징적 존재인 性齋 許傳이 있다.<sup>1)</sup> 황덕길의 가문은 당시의 권력에서 소외되었던 近畿 남인학파로서 출세한 인물이 거의 없다. 그러나 황덕길과 그의 형 黃德壹이 안정복에게 배워<sup>2)</sup> 일가를 이룸으로써 학자 집안의 명성을 쌓았다.

18세기의 조선 사회는 다방면에 걸쳐서 새로운 변화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던 시기이다. 독서계에도 이러한 풍조가 발생하여 전통적인 유학의 경전을 중심으로 하던 독서의 방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었는데 황덕길은 시세에 영합하지 않고 유학 서적만을 독서의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한 그의 독서 성향이 본고의 대상인 <讀書次第圖>에 잘 나타나 있다. <讀書次第圖>는 그의 문집인 『下廬集』에 수록되어 있다.<sup>3)</sup>

현재 학계에서는 황덕길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상태이다. 洪以燮이 황덕길의 『下廬集』에 대해 언급한 논문<sup>4)</sup>이 있는데, 여기에 황덕길의 略傳과 『下廬集』에 대한 간략한 서지적 소개가 포함되어 있다. 『下廬集』은 『斗湖放言』이라는 제목으로 전해오던 것을 문집을 간행하면서 『下廬先生文集』으로 고친<sup>5)</sup> 것이다. 간행은 1918(戊午)년에 그의 후손인 黃洙建과 盧相稷<sup>6)</sup>에 의해 완성되었다.<sup>7)</sup> 앞으로

1) 盧相稷, 『小訥先生文集』 <下廬集跋>.

“退陶李子…(中略)…寒岡鄭述…(中略)…眉叟許穆…(中略)…星湖李瀼…(中略)…順菴安鼎福…(中略)…先生 斯文一脈 不絕如線.”

이동기, “退溪學派의 分析과 教育哲學의 意味”, 『哲學論叢』 제36집(2004. 4), 55.

2) 尹榮善 編, 『朝鮮儒賢淵源圖』(大學社, 1985), 208.

3) 『下廬集』 권8 <雜著>.

4) 洪以燮, “黃德吉의 『下廬集』에 就하여”, 『海圓黃義敦先生古稀記念史學論叢』(1960. 12).

5) 李容九, <下廬集跋>.

“是集也本斗湖放言 今日之曰 下廬先生文集 後學尊敬之義也.”

황덕길의 詩文을 대상으로 하는 국문학 분야와 철학과 역사학을 포함하여 종교학  
방면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하러집」의 권8에 수록된 <讀書次第圖>를 통하여 독서의 대상과  
본질에 대한 황덕길의 견해를 알아봄으로써 18세기 조선 지식인들의 독서 양상의  
일면<sup>8)</sup>을 밝히고자 한다.

## 2. 저술의 배경

### 2.1 황덕길의 편저

황덕길은 독서편찬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다수의 도서 편찬에 직·간  
접적으로 관여하였다. 「下廬集」에는 序文은 없고 後識와 발문이 있는데 後識를  
쓴 사람이 盧相稷이다. 노상직은 후지에서 황덕길의 사승관계와 그의 저작을 자세  
하게 소개했다.<sup>9)</sup>

그의 저서로 「放言」·「日用輯要」·「東賢學則」·「道學源流纂言」·「續纂言」·「三  
子實記」·「四禮要儀」·「家禮翼」·「東儒禮說」·「經訓四教錄」·「四書輯錄」·「洙  
泗淵源錄」·「道東淵源錄」·「增補聖賢群輔錄」·「摭見錄」·「語類纂」·「初學編」·  
「昭代衍編」·「古史詳攷」 등을 남겼다.<sup>10)</sup> 그의 저술을 개괄해 보면 크게 經學, 小學類,

6) 盧相稷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許傳의 제자였으므로 황덕길에게는 재전제자가 되는데  
노상직이 이익과 안정복 허전의 문집을 간행하였다고 이용구가 발문에서 증언하였다.

7) 洪以燮는 위의 논문에서 1916년에 간행되었다고 했는데 後識 및 跋文의 기록과 「한국민족  
문화대백과사전」 권23 下廬文集 條의 기사로 보아 이는 1918년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권23, 下廬文集 條의 기사를 쓴 金在烈이 讀書次第圖의 가치  
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였다.

9) 盧相稷 「下廬集 跋」.

“壬辰作東國九賢贊…(中略)…辛丑作四官之戒 有摭見雜錄 壬寅編三子實記…(中略)  
…甲辰編三先生詩 丙午編東賢學則 丁未編日用輯要 戊申增補聖賢群輔錄成 辛亥作四端  
七情設異端說…(中略)…癸丑遊楓錄…(中略)…辛酉撰順菴先生行狀 壬戌遼古史成 己  
巳瀛閩文粹成 庚午道學源流及詩變成 庚辰讀書次第圖日省圖成 壬午塾規成 甲申眉叟  
先生不祧祀議及巴社洞規成 丁亥修正星湖先生文集 未就而卒.”

성리서 및 사승 연원 관련 저술, 역사서, 개인 문집 등의 영역으로 되어 있다. 18세기 지식인 중에서 전형적인 성리학자의 관심과 저술의도를 알 수 있다.

## 2.2 18세기의 독서 양상

18세기는 전통적인 사회적 통념과 근대적 지향이 섞여 있는 역동적인 시기이다. 지식인들의 독서에도 이러한 양상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다양한 분야와 방대한 분량의 독서에 임했다. 1810년에 저술된 『洪氏讀書錄』에 393종의 서책이 열거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당시의 형편을 짐작할 수 있다.<sup>11)</sup> 조선 초기에서부터 지식인들의 독서는 대부분 유학의 경전에 집중되어 있었다. 공부에 임하는 선비는 반드시 유학의 경전과 宋代의 性理書를 정독하고 남은 힘으로 역사를 읽어 식견을 기르되 잡시라도 이단이나 잡되고 옳지 못한 서적을 보아서 안 된다<sup>12)</sup>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다.

그런데 건국 후 유학 일변도의 정치를 실시했던 조선에서 이 시기에 이르러 새로운 독서의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詭譎과 術策이 주요 내용인 『戰國策』이 많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읽혔으며<sup>13)</sup> 兪晚柱(1755~1788)의 일기인 『欽英』에서 소설을 비롯하여 대단한 분량의 도서가 소개되고 있음<sup>14)</sup>도 이 시기의 독서 문화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의 모든 지식인들이 명·청에서 유입된 신간 도서에 몰두하고 새로운 독서 문화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여전히 전형적인 유학자 성리학자의 자세를 갖고 유학의 경전과 성리학 관련 저서만을 독서의 대상으로 삼고 있던 학자들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황덕길이다.

10)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논고가 필요할 것이다.

11) 홍석주 저, 리상용 역주, 『洪氏讀書錄』 (아세아문화사, 2012).

진재교, “洪奭周 家門의 독서 문화,” 『우리 한문학과 일상문화』 (소명출판, 2007), 405-433.

12) 김영, “조선시대 性理學者의 讀書論,” 『조선 후기 한문학의 사회적 의미』 (집문당, 1993), 182.

13) 남은경, “조선 중기 독서 경향과 『戰國策』,” 『우리 한문학과 일상문화』, (소명출판, 2007), 361-3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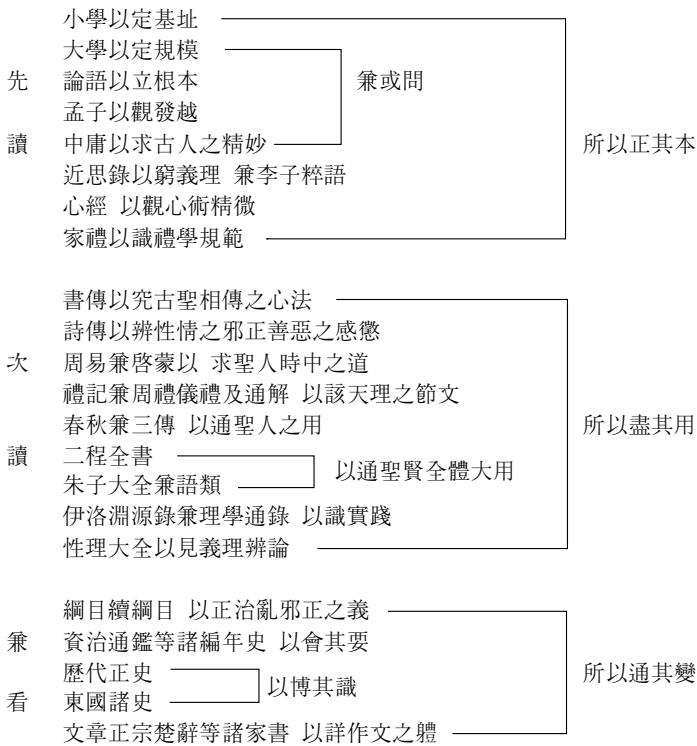
14) 강명관, “한 지식인의 독서 체험과 조선 후기 문학-『흙염』에 대하여,” 『우리 한문학과 일상문화』 (소명출판, 2007), 384-404.

### 3. 讀書次第圖의 분석

황덕길이 <讀書次第圖>를 지은 것은 1820(庚辰)년이다. 그의 나이 70세 때이니 만년의 학문과 사상의 정수가 모인 저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3.1 讀書次第圖

황덕길은 평생을 학문에만 몰두했던 학자였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반영하여 독서의 순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1> 독서차제도

황덕길이 독서의 순서를 이처럼 도표로 그려 제시한 것은 초학자가 독서를 시작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와 같은 독서의 과정을 먼저 거쳐야한다는 가르침이라 할 수 있다. 황덕길은 독서의 영역을 先讀 · 次讀 · 兼看으로 나누어 먼저 읽어야 할 것과 뒤에 읽어야 할 것의 분류를 명확하게 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先讀：小學·大學(兼 或問)·論語·孟子·中庸(兼 或問)·近思錄(兼 李子粹語)·心經·家禮  
次讀：書傳·詩傳·周易(兼 啓蒙)·禮記(兼 周禮 儀禮 通解)·春秋(兼 三傳)·二程全書·朱子大全(兼 語類)·伊洛淵源錄(兼 理學通錄)·性理大全  
兼看：綱目 續綱目·資治通鑑 諸編年史·歷代正史·東國諸史·文章正宗 楚辭

### 3.1.1 先讀

先讀해야 할 서적으로 「小學」·「大學」(兼 或問)·「論語」·「孟子」·「中庸」(兼 或問)·「近思錄」(兼 李子粹語)·「心經」·「家禮」를 제시하였다. 「小學」과 四書 및 或問을 말한 것은 유학자들의 학습에 있어서 전형적인 독서의 수순이다. 여기에 性理書인 「近思錄」과 「心經」, 「家禮」를 포함시켰다. 특이한 것은 「近思錄」을 읽을 때에 「李子粹語」를 겸하여 읽도록 한 것이다. 「이자수어」는 조선 후기의 유학자 李瀾이 李滉과 그의 문인들의 글 중에서 인격수양에 긴요한 글을 뽑아서 類門別로 엮은 책이다. 이러한 의도로 내용을 정리한 최초의 편집자인 이익은 「道東編」이라 명명하고 40여 년간 보관하다가 安靖복과 尹東奎가 최종으로 교정 첨삭하고 근사록의 體例를 본받아 「李子粹語」라는 이름으로 간행하였다.<sup>15)</sup> 황덕길의 아버지 黃以坤은 이익의 문인이었고 황덕길은 安靖복의 문인이었으니 그가 「이자수어」를 존중하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 3.1.2 次讀

先讀의 다음에 읽어야 할 次讀도서로는 「書傳」·「詩傳」·「周易」(兼 啓蒙)·「禮記」(兼 周禮 儀禮 通解)·「春秋」(兼 三傳)·「二程全書」·「朱子大全」(兼 語類)·

15) 李瀾 「李子粹語 識」.

“輒採其要而錄之 名以道東編 爾來四十有餘年未及刊正 吾友安百順鼎福 欲更可添削 一遵紫陽之近思定例 與朋友共之 是吾望也 然瀾精魂剝盡 自無力可以及此 遂托百順與尹幼章東奎 反覆商量而共圖之書 感易其目曰李子粹語云爾.”

『伊洛淵源錄』(兼 理學通錄)·『性理大全』을 제시하였다. 이는 五經과 程顥·程頤의 문집, 朱熹의 문집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伊洛淵源錄』은 1173년(乾道 9년 癸巳)에 주희가 편찬한 저서로 송대 신유학의 주요 학자들의 계맥을 밝힌 것이다. 周敦頤에서부터 46명에 이르는 학자들의 사적과 언행을 기록함으로써 신유학의 연원과 발전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理學通錄』은 이황이 『이락연원록』의 영향을 받아 저술한 책으로서 『宋元錄』이 원래의 서명이고 『宋季元明理學通錄』이라고도 한다. 주희를 비롯하여 주희의 직계 제자 및 이후의 주자학자들만을 대상으로 傳記와 語錄을 기록한 책이다. 이 책을 검독하라고 한 것도 『이자수어』의 예와 같을 것이다.

『성리대전』은 명대에 永樂帝의 명으로 胡廣 등 42명의 학자가 성리학설을 집대성하여 편집한 책이다. 이 책은 간행된 지 4년 만에 우리나라에 수입되었으며 세종은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내에서 간행하였다.<sup>16)</sup>

### 3.1.3 兼看

先讀과 次讀으로 읽어야 할 서적을 독과한 뒤에는 『綱目』·『續綱目』·『資治通鑑』·『諸編年史』·『歷代正史』·『東國諸史』·『文章正宗』·『楚辭』을 제시하였다. 이는 독서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역사서와 문학서를 읽도록 한 것이라 생각된다. 황덕길이 제시한 역사서 중에서 『綱目』이나 『續綱目』, 『資治通鑑』을 비롯하여 여러 편년사 및 正史를 선정한 것과 대등하게 우리나라의 역사서를 읽어야 할 필요성을 말한 것은 자주적 인식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안정복이 『東史綱目』을 저술하고 황덕길 자신이 『古史詳攷』를 지은 사실을 감안할 때 이해할 수 있다.

역사서를 읽게 하는 것은 일반적인 독서지도법이지만 문학서를 권유한 것은 특이하다. 그렇다고 해서 황덕길이 유학자의 본분에 벗어나 문학만을 익히기 위

16) 『世宗實錄』 권30, 7년 10월 15일 조에 性理大全과 五經, 四書를 인쇄하기 위하여 종이를 진상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그후 간행까지 관련 기록이 다수 있다.

한 책을 읽으라 한 것은 아니다. 『文章正宗』은 南宋의 유학자인 眞德秀가 편찬한 시문 선집으로 그 내용이 유가적 사상을 담고 있으며, 도덕의 함양에 도움이 되는 문장만을 수록하였으므로 유학자들이 존중하였다. 『楚辭』는 충신 屈原의 우국충정이 담겨 있는 문장으로 조선의 유학자들이 『離騷經』으로 높여 부르고 즐겨 읽었던 책이다.

위의 내용과 같이 황덕길이 제시한 독서 순서의 특징은 성리서를 사서오경의 수준으로까지 격상한 것과 조선 서적의 필독을 강조한 것이다. 황덕길은 『近思錄』, 『心經』, 『家禮』를 四書와 동등하게 인식하였으며, 『二程全書』, 주자의 여러 저술, 『性理大全』 등을 五經과 함께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先讀에는 『李子粹語』, 次讀에는 『理學通錄』, 兼看에는 우리의 여러 역사서를 읽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여 독서에 있어서의 자주적 인식을 보여주었다.

황덕길은 각 순서별로 관련 도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기도 했다. 先讀의 경우에는 ‘근본을 바르게 하는 것(所以正其本)’을 내세웠다. 次讀의 도서는 ‘그 쓰임을 다하는 것(所以盡其用)’을 위한 것이며, 兼看은 ‘그 변화에 능통함(所以通其變)’을 들었다. 황덕길은 이처럼 독서의 과정과 근본적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인물이었다.

### 3.2 并說

황덕길은 <讀書次第圖>를 제시하면서 ‘并說’을 기록하여 독서의 자세와 독서의 궁극적 원리 및 당위성을 밝혔다.

성현이 있으면 도가 성현에 있으나 성현이 멀어지면 도가 성현의 책에 있다. 책은 성현의 법인과 덕행과 심학의 전함을 기록하는 것이다. 만세를 위하여 법칙을 세운 것인데 독서하지 않는다면 후대의 사람들이 학문을 하는 방법을 알 수 없으니 대개 성현의 책은 멀리하는 하늘과 같고 가까이는 땅과 같다. 하늘과 같으므로 지극히 높고 밝으며 땅과 같으므로 지극히 크고 넓다. 높고 밝아 뛰어가서 그 영역에 들어갈 수 없으며 넓고 커서 빨리 보고 그 끝을 측량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말씀은 평소의 말씀이고 행동은 평소의 행동이니 그 마음은 곧 함께 하늘에서 얻은 것이므로 사람이 다 읽을 수 있고 사람들이 다 도로 삼을 수 있다. 날로 쓰여 사람에게서 멀어지지 않는 것이니 읽는 자가 먼저 모름지기 순서에 떳떳함이 있어야 하며 한번이라도 게으르지 않음에 이르러야 한다. 여러 차례 외워서 관통하고 깊이 생각하여 통하고 깊이 잠겨 그 뜻을 완성하고 체험하기를 반복해야 한다. 성현의 덕행이 아니면 내 몸에서 시작하지 말아야 하니 항상 마치 성인을 스승처럼 모시고 현인을 전함이 그 자리에 엄연하게 임한 것 같이 해야 할 것이다.

서로 전하는 심학이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서 묵묵히 합하여 책과 내가 하나가 된다면 도에 가까울 것이다. 전에 이르기를 높은 곳을 올라가려면 반드시 낮은 곳에서부터 하며 먼 길을 가려면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니 먼저 할 바와 나중에 할 바를 알아서 나중에 하는 것이 가히 더불어 함께 공부하는 것이며 가히 더불어 도에 들어가는 것이다.<sup>17)</sup>

이와 더불어 서당의 규례라 할 수 있는 ‘塾規’에서 학동이 해야 할 일을 24개로 나눈 것 중에서 讀書의 방법을 설명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서의 법은 溫習만한 것이 없다. 한 권을 읽으면 하루 동안 온습하고 두 번을 읽으면 이를 동안 온습하여 날마다 온습하고 달마다 반복하여 장구마다 미루어 연역하고 항상 이해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지나쳐버려서는 안 된다. 자연스럽게 충분히 익혀 오래도록 잊지 말아야 한다. 만약 의심이 있으면 곧 책을 놓고 하나씩 뽑아 기록하여 절마다 물어서 단점이 있는 체로 스스로를 숙여서는 안 된다. 몸을 마칠 때까지 조용히 독서하여 모름지기 독서가 장차 성현의 학문을 배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름지기 성현을 배운다는 것은 곧 개인으로써 간주하는 것이니 만약 논어에서 공자가 집에 들어오면 효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읽었다면 반드시 내가 그 효를 다할 것을 생각하고 집밖으로 나가면 공손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면 모름지기 나의 공손함을 다해야 하고 말할 때는 충성스럽고 믿음이 있으며 행동할 때는 돈독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면 오히려 그 말이 충성스럽

17) 『下廬集』 권8 <雜著>.

“聖賢存而道在於聖賢 聖賢遠而道在於聖賢之書 書所以記聖賢之法言德行與心學之傳 爲萬世立則 非讀書 後之人無以知爲學之方 蓋聖賢之書 遠則如天 近則如地 如天則極高明 如地則致廣大 高明則不可以躡步而造其闕也 廣大則不可以驟看而測其深也 然而其言庸言也 其行庸行也 其心則同得之天也 人皆可讀 人皆可爲其道也 日用而不遠於人矣 讀者先須循序有常 致一不懈 誦數以貫之 思索以通之 沈潛玩味 反復體驗 非聖賢德行 不敢作於吾之身 常如聖師賢傳儼臨於座 其相傳心學 炯然墨契乎吾之中 書與我爲一 則近道矣 傳曰 升高必自卑 行遠必自邇 知所先後而後 可與共學 可與適道。”

고 믿음직 아니하며 행동이 돈독하고 공경하지 않은가를 두려워하여 날마다 덕에 나아가고 학문을 닦음에 이르러야 한다. 마음을 간직하고 본성을 기른다는 것도 다 그러하지 아니함이 없어야 바야흐로 독서인이 될 수 있다. 만약 다만 그 책을 읽기만 하고 몸소 행하여 마음으로 얻음이 없다면 도리어 배우지 않은 것만 못하다.<sup>18)</sup>

위의 두 인용을 함께 분석해 보면 황덕길의 독서론은 傳道·溫習·實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황덕길은 이전 성현의 가르침, 즉 道가 서책에 남아있으니 읽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진정한 독서를 통해 성현의 가르침을 체득함으로써 책과 ‘나’가 한 몸이 된다면, 이는 책 속의 성현과 독서하는 자가 더불어 함께 공부하고 함께 道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인식했다. 따라서 독서는 道를 전해 받는 유일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독서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溫習을 강조하였다. 온습은 論語에서 말한 ‘溫故而知新’과 ‘學而時習之’를 겸한 표현으로 보인다. 이 말은 오늘 하나를 배우면 그것을 예전에 배운 것과 연결하여 익히고,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익히는 과정을 생을 마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황덕길은 독서 중에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것을 그냥 지나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라고 단정했다. 이것은 현대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매우 의미 있는 독서방법이다.

황덕길은 독서의 목적이 배운 것을 실천함에 있다고 생각했다. 심지어는 책을 읽기만 하고 몸소 행하여 마음으로부터 깨닫지 못하면 책을 읽지 않은 것과 같다고 말했다. 황덕길은 실천하지 않고는 책에서 배운 것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18) 『下廬集』卷8, 塾規, 讀書.

“讀書之法 莫如溫習 讀過一卷 溫過一日 讀過二卷 溫過二日 逐日帶溫 逐月反復 章章抽繹 常常理會 勿令少有放過 自然慣熟 永久不忘 如或有疑 卽置冊子 逐一抄記 隨節隨問 不可護短而自欺 以致終身而黯暗讀書 須知讀書將以學聖賢之學 須學聖賢 方是做箇人 如讀論語子曰八則孝 須思吾盡其孝 曰出則悌 須思盡吾悌 曰言忠信行篤敬 猶恐其言未忠信 行未篤敬 至於日進德修業 曰存心養性 莫不皆然 方是讀書人 若徒讀其書 無有乎躬行心得 則反不若不學.”

황덕길의 독서론인 傳道·溫習·實踐의 관점은 시대를 불문한 독서론으로 손색이 없는 것이다.

### 3.3 「擊蒙要訣」과의 비교

황덕길의 독서론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 栗谷 李珥가 「擊蒙要訣」에서 말한 독서의 순서를 살펴보았다. 이이는 다음과 같이 독서의 순서를 말하였다.

小學→大學(或問)→論語→孟子→中庸→詩經→禮經→書經→易經→近思錄  
→家禮→心經→二程全書→朱子大全→朱子語類→他 性理說→史書<sup>19)</sup>

이이와 황덕길이 말한 독서의 순서에는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다. 같은 점은 유학의 경전과 성리서, 역사서를 두루 읽어야 한다는 점과 제시한 독서 목록이 대부분 유사하다는 것이다. 다른 점은 이이는 유학의 경전을 먼저 읽고 난 뒤에 성리서를 읽고, 다음으로 역사서를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 황덕길은 성리서 중에서도 사서와 함께 먼저 읽어야 할 것이 있으며, 오경과 함께 뒤에 읽어야 할 것이 있다고 나누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문장종정과 초사는 이이의 경우, 언급하지도 않은 서책이다.

독서의 과정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서 황덕길이 이이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이는 독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단과 잡류의 바르지 못한 서책은 한 순간이라도 열어 보아서는 안 된다.<sup>20)</sup>

황덕길의 인식도 이이와 유사하다. 황덕길은 39세 되던 해(戊申)에 스스로를 경계하는 8조의 自警文을 지었는데 그중에 다음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19) 李珥, 「擊蒙要訣」 권4, 讀書章.

20) 李珥, 「擊蒙要訣」 권4, 讀書章.

“若異端雜類不正之書 則不可頃刻披閱也.”

공자와 맹자, 정자나 주자의 책이 아니면 눈에 붙이지를 않는 것으로 평소애  
지내며, 도학과 예의의 말이 아니면 입에서 나오지 않는 것으로 덕에 나아간다.<sup>21)</sup>

이처럼 황덕길은 자신을 철저한 유학자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리고는 그의 다짐  
대로 평생동안 유학자들이 말하는 雜書를 읽지 않고 유학의 경전과 성리서 만을  
읽었으며, 그 결과 위의 <讀書次第圖>를 제작하게 된 것이다.

황덕길은 어느 서책을 읽을 때 관점을 두어야 할 바를 명시했는데, 이것도 이이  
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두 학자의 견해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순위	書名	讀書次第圖	擊蒙要訣
1	小學	定基址	於事親敬兄忠君弟長隆師親友之道 一一詳玩而力行之
2	大學(兼 或問)	定規模	於窮理正心修己治人之道 一一眞知而 實踐之
3	論語	立根本	於求仁爲己涵養本原之功 一一精思而 深體之
4	孟子	觀發越	於明辨義利人慾存天理之說 一一明察 而擴充之
5	中庸(兼 或問)	求古人之精妙	於性情之德推致之功位育之妙 一一玩 索而有得焉
6	近思錄(兼李子粹語)	窮義理	宜間間精讀 使義理常常浸灌吾心
7	心經	觀心術精微	宜間間精讀 使義理常常浸灌吾心
8	家禮	識禮學規範	宜間間精讀 使義理常常浸灌吾心
9	書傳	究古聖相傳之心法	於二帝三王治天下之大經大法 一一領 要而邇本焉
10	詩傳	辨性情之邪正善惡之 感懲	於性情之邪正善惡之褒戒 一一潛繹 感 發而懲創之
11	周易	求聖人時中之道	於吉凶存亡進退消長之幾 一一觀玩而 窮研焉
12	禮記 (兼 周禮·儀禮·通解)	該天理之節文	於天理之節文 儀則之度數 一一講究而 有立焉

21) 『下廬集』, 권9, 雜著, 自警文.

“非孔孟程朱之書 不接於目 所以居業 非道學禮義之語 不出於口 所以進德.”

순위	書名	讀書次第圖	擊蒙要訣
13	春秋(兼 三傳)	通聖人之用	於聖人賞善罰惡抑揚操縱之微辭奧義一一精研而契悟焉
14	二程全書	通聖賢全體大用	宜間間精讀 使義理常常浸灌吾心
15	朱子大全(兼 語類)	通聖賢全體大用	宜間間精讀 使義理常常浸灌吾心
16	伊洛淵源錄 (兼 理學通錄)	識實踐	
17	性理大全	見義理辨論	宜間間精讀 使義理常常浸灌吾心
18	綱目·續綱目	正治亂邪正之義	通古今達事變 以長識見
19	資治通鑑	會其要	通古今達事變 以長識見
20	歷代正史·東國諸史	博其識	通古今達事變 以長識見
21	文章正宗·楚辭	詳作文之體	

이이와 황덕길은 후학들에게 독서의 순서를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에 관심을 두고 읽어야 하는가를 말함으로써 독서에서의 지향점을 보여주었으나 표현의 방법은 약간 다르다. 『小學』의 예를 들어 보면 이이는 소학을 읽는 자들은 ‘어버이를 섬기며 형을 공경하고 임금에 충성하며 어른에 공손하고 스승을 높이며 벗과 친하게 지내는 도리를 하나하나 완상하여 힘써 행하라(於事親敬兄忠君弟長隆師親友之道 一一詳玩而力行之)’라고 하였으나, 황덕길은 ‘터전을 정하라(定基址)’라고만 하였다. 이이가 완곡하고 자세하게 설명한 것과 비교되게, 황덕길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말했다. 그러나 성리서의 경우에는 이이는 전체 성리서에 대하여 ‘마땅히 사이사이를 정밀하게 읽어 의리가 항상 내 마음에 적실 수 있게 해야 한다(宜間間精讀 使義理常常浸灌吾心)’고 일률적으로 말했으나, 황덕길은 각 성리서 별로 관점을 제시한 차이가 있다. 황덕길의 의도가 이이보다 정밀하고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 4. 結 言

이 연구는 18세기 지식인의 독서론 고찰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下廬 黃德吉(1750~1827)의 문집인 『下廬集』 속에 수록된 <讀書次第圖>를 대상으로 선택하여 특징과 의의를 고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앞의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겠다.

황덕길은 南人 실학파의 학자로서 전형적인 유학자이며 성리학자이다. 이러한 그의 학문적 자세와 입장이 <讀書次第圖>에 잘 나타나 있다. 18세기는 전통적인 사회적 통념과 근대적 지향이 섞여 있는 역동적인 시기이다. 지식인들의 독서에도 이러한 양상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지식인들이 모두 명·청에서 유입된 신간 도서에 몰두한 것은 아니다. 유학의 경전과 성리학 관련 저서만을 독서의 대상으로 삼고 있던 학자들이 분명히 있었고, 대표적인 인물이 황덕길이다.

황덕길은 독서의 순서를 先讀, 次讀, 兼看 등의 3단계로 분류하였다. 先讀의 대상은 「小學」·「大學」(兼 或問)·「論語」·「孟子」·「中庸」(兼 或問)·「近思錄」(兼 李子粹語)·「心經」·「家禮」 등이었으며, 次讀으로는 「書傳」·「詩傳」·「周易」(兼 啓蒙)·「禮記」(兼 周禮 儀禮 通解)·「春秋」(兼 三傳)·「二程全書」·「朱子大全」(兼 語類)·「伊洛淵源錄」(兼 理學通錄)·「性理大全」 등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兼看으로는 「綱目」과 「續綱目」·「資治通鑑」·「諸編年史」·「歷代正史」·「東國諸史」·「文章正宗」과 「楚辭」 등을 제시하였다.

<讀書次第圖>의 특징은 성리서를 사서오경의 수준으로까지 격상한 것과 조선 서적의 필독을 강조한 것이다. 황덕길은 「近思錄」, 「心經」, 「家禮」를 四書와 동등하게 인식하였으며, 「二程全書」, 주자의 여러 저술, 「性理大全」 등을 五經의 차원에서 읽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先讀에는 「李子粹語」, 次讀에는 「理學通錄」, 兼看에는 우리의 여러 역사서를 읽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여 독서에 있어서의 자주적 인식을 보여주었다. 兼看에서 「文章正宗」과 「楚辭」를 들어 작문의 체계로 삼도록 한 것도 특이한 사항이다.

황덕길의 독서론은 傳道·溫習·實踐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는 독서가 道를

전해 받는 유일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독서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溫習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오늘 하나를 배우면 그것을 예전에 배운 것과 연결하여 익히고,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익히는 과정을 생을 마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덕길은 독서의 목적이 배운 것을 실천함에 있다고 생각했다. 심지어는 책을 읽기만 하고 몸소 행하여 마음으로부터 깨닫지 못하면 책을 읽지 않은 것과 같다고 말했다. 황덕길의 독서론인 傳道·溫習·實踐의 관점은 현대의 독서론으로도 손색이 없다.

「擊蒙要訣」과 비교해 본 결과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다. 같은 점은 제시한 독서 목록이 대부분 유사하다는 것이다. 다른 점은 이이는 유학의 경전을 먼저 읽고 난 뒤에 성리서를 읽고, 다음으로 역사서를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 황덕길은 성리서 중에서도 사서와 함께 먼저 읽어야 할 것이 있으며, 오경과 함께 뒤에 읽어야 할 것이 있다고 나누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이의 경우 언급하지도 않은 「문장종정」과 「초사」를 제시하였다.

두 학자가 독서에 있어서 대상 서책을 읽을 때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을 제시했는데 이이가 완곡하고 자세하게 설명한 반면, 황덕길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말했다. 성리서에 대해서는 이이가 전체 성리서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읽을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 말했으나, 황덕길은 각 성리서 별로 관점을 제시한 차이가 있다. 황덕길의 의도가 이이보다 정밀하고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황덕길의 독서론은 이이의 영향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서 이이의 독서론보다 한층 성숙한 측면이 있다.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엽까지에도 변화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독서풍조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전통적인 독서를 하는 전형적인 유학자 및 성리학자가 있었으며, 그 중 한사람인 황덕길이 자신의 독서방법과 독서론을 소유하고 있었다. 앞으로 다른 인물들의 독서관과의 광범위한 비교를 통해 이 시대의 독서문화와 독서에 대한 인식의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盧相稷. 『小訥先生文集』.

李珥. 『擊蒙要訣』.

李滉 著, 李瀾 編. 『李子粹語』.

黃德吉. 『下廬集』.

『世宗實錄』.

김 영. 『조선 후기 한문학의 사회적 의미』. 집문당, 1993.

尹榮善 編. 『朝鮮儒賢淵源圖』. 太學社, 1985.

이화한문학연구회 엮음. 『우리 한문학과 일상문화』. 소명출판, 2007.

이동기. “退溪學派의 分析과 教育哲學的 意味.” 『哲學論叢』 제36집(2004. 4, 새  
한철학회). 53-7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6.

洪以燮. “黃德吉의 『下廬集』에 就하여.” 『海圓黃義敦先生古稀記念史學論叢』.

國大學校 史學會 黃義敦先生古稀記念論叢編纂會, 1960. 12.

홍석주 저, 리상용 역주. 『洪氏牘書錄』. 아세아문화사, 2012.